

주요 내용

1. [한국교회 장로 신앙의식 조사]
장로 10명 중 8명, '장로임기제' 찬성!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일반 국민의 성소수자 인식
 - 2)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 인식



*사진의 출처는 '좋은신문'

장로 10명 중 8명, ‘장로임기제’ 찬성!

교회의 ‘장로’는 본래 장로회 교단에서 사제(Presbyter)의 의미의 직책명이었으나 한국에서 연장자, 원로의 뜻을 가진 ‘장로’(Elder)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 평신도의 대표로서 목사를 도와 교회의 치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일하는 직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랜 기간 섬기는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과 교회 활동에서 모범을 보이는 이들이 받는 귀한 직분이다 보니 역할에 대한 부담과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한국장로신문사’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예장 통합 교단 장로 1,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로 신앙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장로 10명 중 8명은 교회의 비전과 교인/담임 목사와의 갈등 등으로 ‘장로 사역 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변 장로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다. 장로 관련 제도 중 ‘장로 임기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82%)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장로 한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스스로 견제하는 이유가 가장 컸다.

이번 <넘버즈 204호>에서는 한국교회 내 장로들의 교회생활과 신앙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장로 신앙의식 및 생활 조사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예장 통합 교단 장로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휴대폰 문자로 URL 발송)
표본 규모	총 1,074명(유효 표본) - 시무장로 850명(79.1%) - 은퇴/원로장로 224명(20.9%)
표본 추출 방법	장로 유형별 할당 추출 (Quota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04월 13일 ~ 05월 02일(20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장로신문사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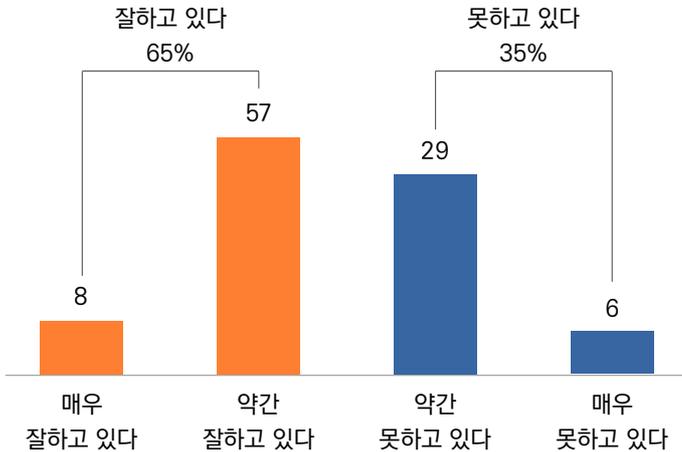
01

[장로 인식/평가]

장로 3명 중 2명, 본인의 장로직 수행 '잘하고 있다' 평가!

- ▶ 시무장로 본인에게 장로직 수행에 대해 평가토록 한 결과, '잘하고 있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이 장로 3명 중 2명 정도(65%)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못하고 있다'(매우+약간)는 평가는 3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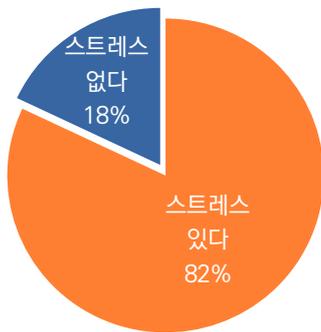
[그림] 본인의 장로직 수행 평가 (시무장로, %)



◎ 장로 대부분, 장로 사역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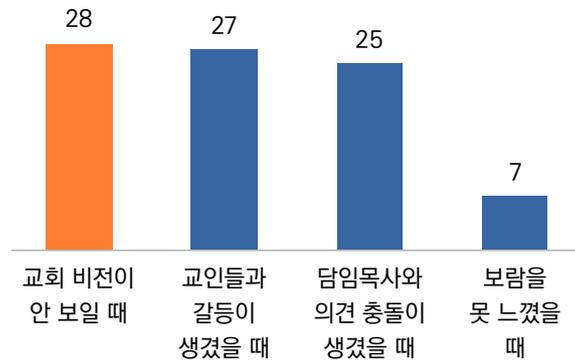
- ▶ 시무장로들이 장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 장로 10명 중 8명이 '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해 장로 대부분이 사역 감당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장로 사역 시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으로는 '교회 비전이 안 보일 때' 28%, '교인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27%,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25%로 상황과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장로 사역 시 스트레스 정도 (시무장로, '매우+어느 정도' 비율*)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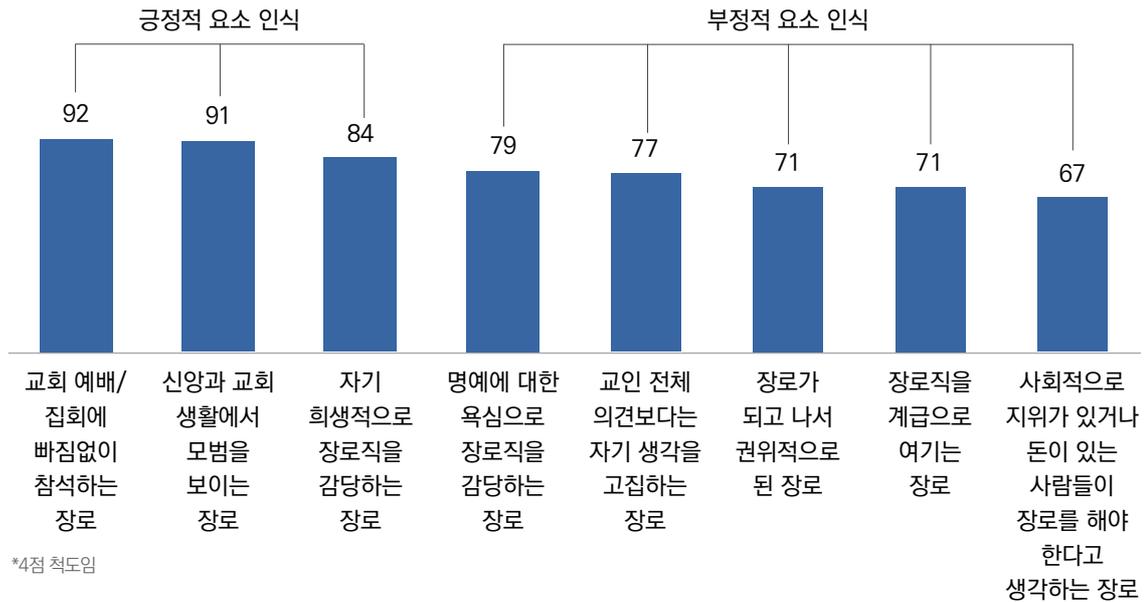
[그림] 장로 사역 시 스트레스 상황 (직분 스트레스가 있는 시무장로, 상위 4위, %)



◎ 주변에 '신앙 모범 장로있다' 91% vs '명예 욕심있는 장로있다' 79%

- ▶ 장로의 몇 가지 유형을 나열하고, 주변에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장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 ▶ 대다수의 장로들은 주변에 '교회 예배/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장로'와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장로'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동료 장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장로직을 감당하고'(79%), '교인 전체 의견보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장로'(77%)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동의율 또한 높게 응답돼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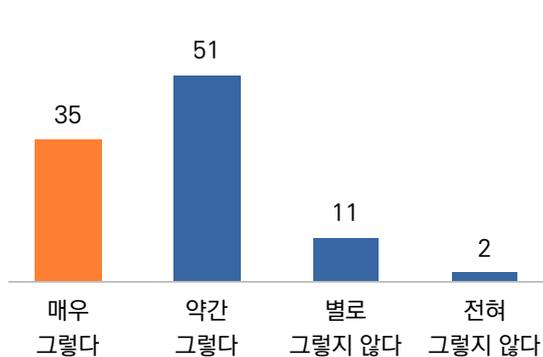
[그림] 주변에 있는 장로 유형 (시무장로, '매우+약간'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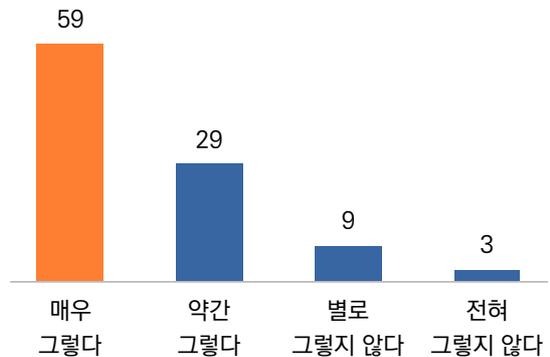
◎ 교회 정책 결정 시, 교인 의견 반영 '매우 그렇다' 35%에 그쳐!

- ▶ 장로의 의견 수렴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각각 '장로들의 교인 의견 수렴 정도'와 '교회 당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 정도'에 대해 시무장로 스스로 평가토록 했다.
- ▶ 그 결과, '장로들이 전체 교인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교회 정책을 결정한다'의 '매우 그렇다' 비율은 35%로 '교회 당회가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의 59%보다 낮았다. 시무장로 3명 중 1명 정도만이 교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장로의 교인 의견 수렴 정도 (시무장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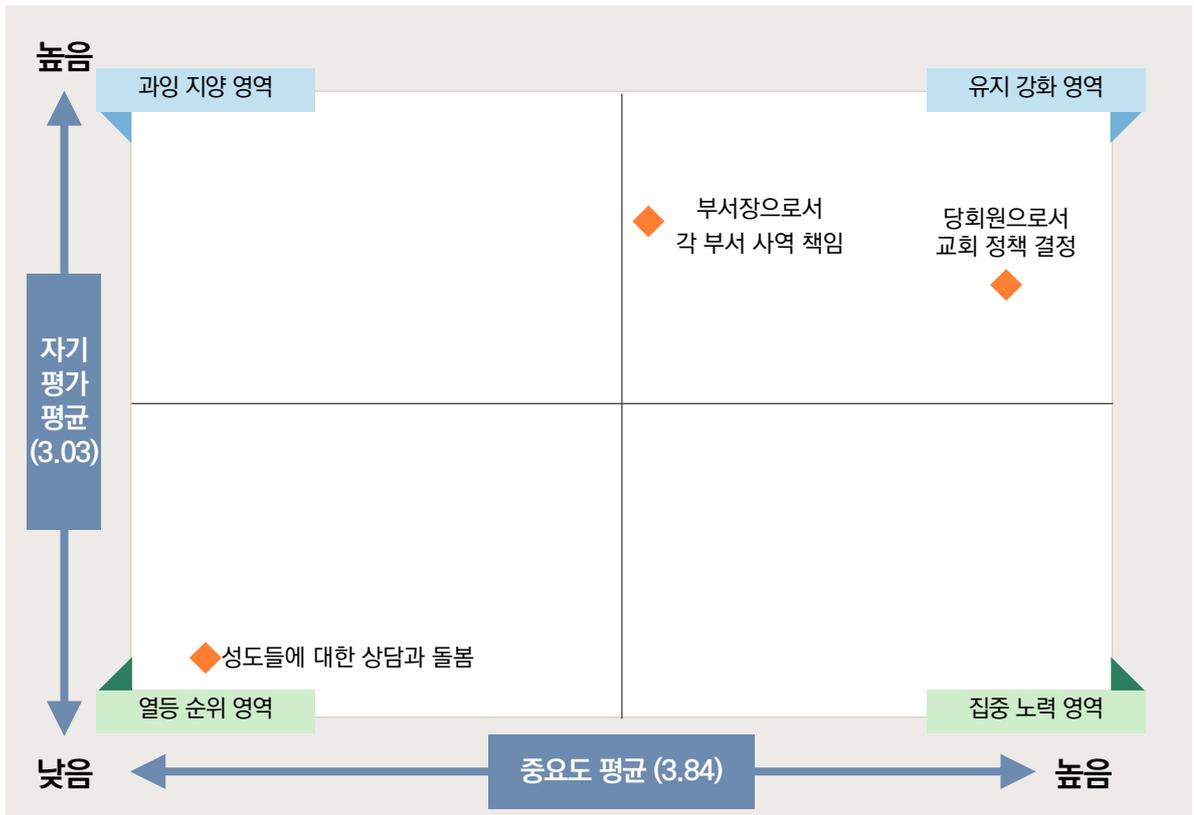
[그림] 당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 정도 (시무장로, %)



◎ 장로 사역 중 강화 영역, '교회 정책 결정 역할'!

- ▶ 장로의 대표적인 3가지 사역을 제시하고 각각의 중요도와 사역 평가를 물었다. 중요도는 '교회 정책 결정' > '각 부서 사역 책임' >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돌봄' 순으로 '당회원'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고, 자기 평가는 '각 부서 사역 책임' > '교회 정책 결정' >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돌봄' 순으로 나타나 '부서장' 역할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 ▶ 장로 사역 중요도와 수행 평가를 교차하여 분석해보면(IPA*분석), '교회 정책 결정'과 '각 부서 사역'은 현재의 노력을 강화하는 선에서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돌봄'은 중요도와 현재 수행 평가 모두 낮아, 성도 돌봄 역할을 장로의 역할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 장로 사역별 평가* (시무장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실행도 분석' 으로서 어떤 행동 노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임.
 **자기평가 '매우 잘하고 있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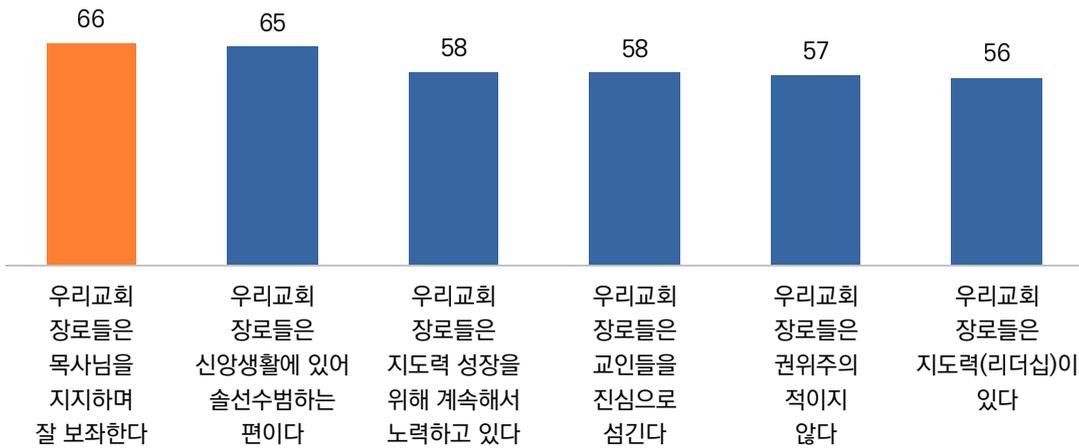
[표] 사역별 장로 역할 중요도/평가

구분	당회원으로 교회 정책 결정	부서장으로서 각 부서 사역 책임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돌봄
장로 역할 '매우 중요하다'	92%	87%	79%
장로로서 '매우 잘하고 있다'	27%	31%	16%

◎ 교인 40%는 소속교회 장로 지지하지 않음!

- ▶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은 장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최근 발표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의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2023.06)-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자료를 통해 성도들이(교회출석자) 생각하는 장로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살펴보았다.
- ▶ '목사님을 지지하며 잘 보좌한다'가 '그렇다' 비율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신앙생활에 있어 솔선수범한다' 65%, '지도력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58% 순이었다. 전체 질문 항목에서 10명 중 6명 정도 비율로 장로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역으로, 교인 40%정도는 소속교회 장로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림] 현 교회 장로 활동 평가 (교회 출석 평신도, 장로제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장로가 있는 교회 출석자 중 장로 제외 개신교인 1,189명, 온라인조사, 2023.01.)

**5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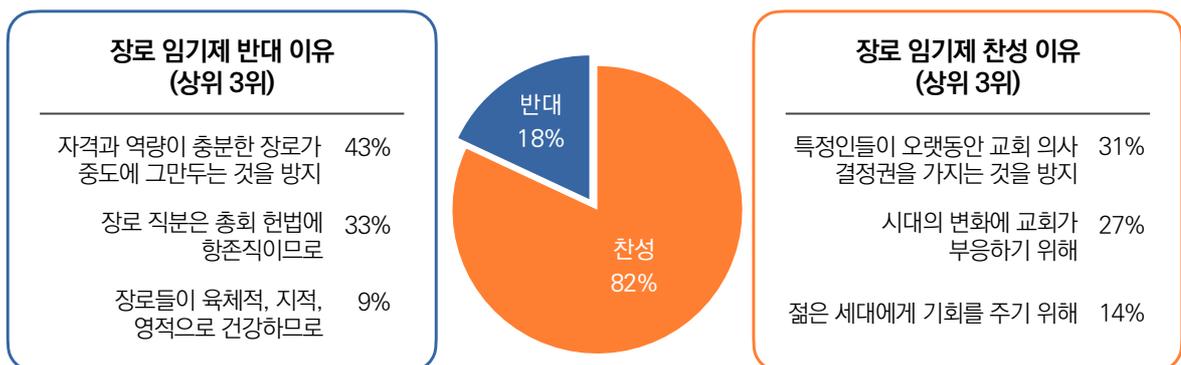
02

[장로 관련 제도]

장로 10명 중 8명, '장로 임기제' 찬성!

- ▶ 장로 임기제란 '임기를 정해서 시무하고 임기가 끝나면 시무장로에서 물러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장로 임기제'에 대한 시무장로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 ▶ '찬성' 82%, '반대' 18%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장로 임기제 찬성 이유로는 '특정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31%) 의견을, 반대로 '장로 임기제 반대 이유'는 '자격과 역량이 충분한 장로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43%)을 각각 1위로 꼽았다. 일반 정치와 마찬가지로 '권력의 독점 방지'와 '개인의 역량 발휘 보장'이란 측면이 충돌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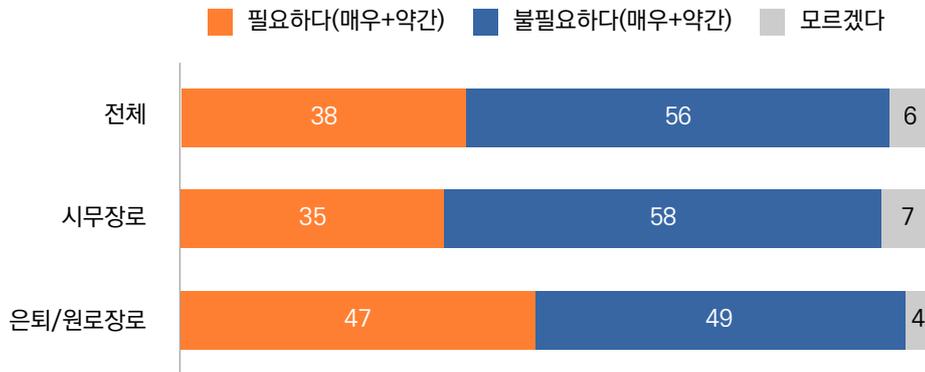
[그림] 장로 임기제에 대한 의견 (시무장로)



◎ 원로목사/원로장로 제도, 시무장로 그룹이 은퇴/원로장로 그룹보다 불필요 의견 높아

- ▶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고 정년이 되거나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교회가 일정한 예우를 하는 제도인 '원로 목사 제도'와 '원로 장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시무장로 그룹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 은퇴/원로장로 그룹은 필요와 불필요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림] 원로 목사/원로 장로 제도에 대한 의견 (장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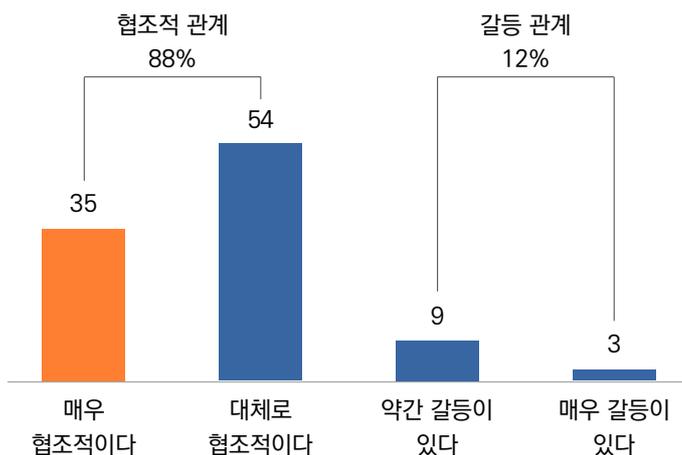


03

[담임목사와의 관계] 장로와 담임목사, '매우 협조적인 관계' 35%에 그쳐!

- ▶ 시무장로들에게 '담임목사와 장로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장로 대부분(88%)은 '협조적이다'(매우+대체로)라고 인식했고, '매우 협조적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장로 3명 중 1명 정도만 담임목사와 매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등이 있다'(매우+약간)는 의견은 1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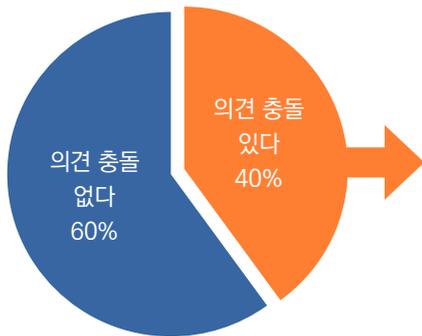
[그림] 담임목사와 관계 (시무장로, %)



◎ 장로 10명 중 4명,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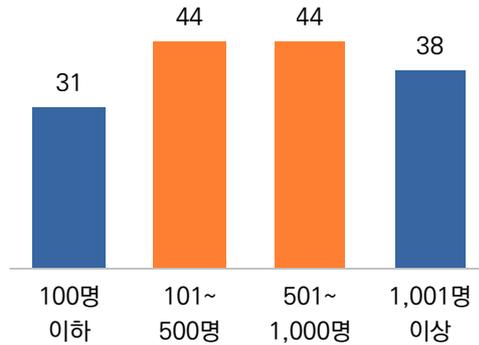
- ▶ 시무장로들에게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와의 의견 충돌 정도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의견 충돌이 있다'(자주+가끔) 40%, '의견 충돌이 없다' 60%로 응답해 장로 10명 중 4명은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교회 규모별로는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보다는 101~1,000명 규모의 중형교회에서 장로와 담임목사 간의 의견 충돌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 정도 (시무장로, '자주+가끔' 비율*)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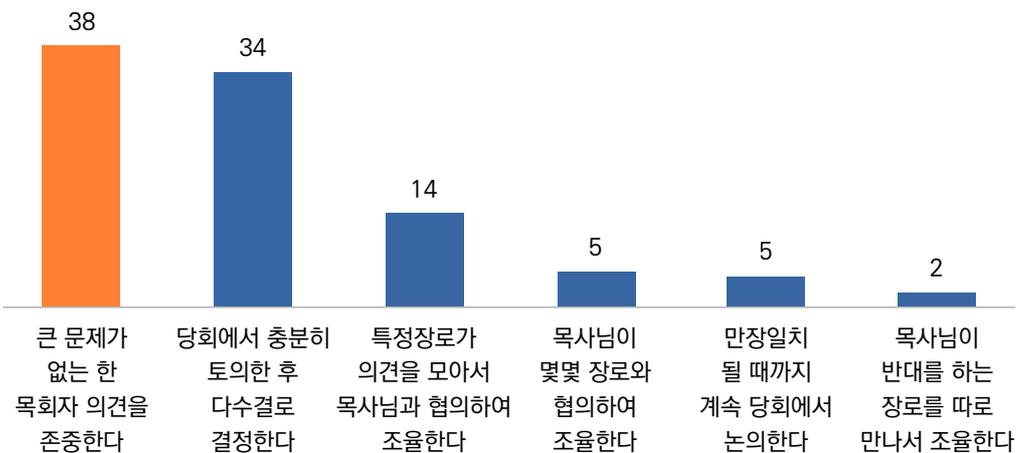
[그림] 교회 규모별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 있는 비율 (시무장로, '자주+가끔' 비율*, %)



◎ 장로와 담임목사 간 의견 충돌 시 '담임목사 의견 존중' 38%에 그쳐!

- ▶ 담임목사와의 의견 충돌 시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었더니 '큰 문제가 없는 한 목회자 의견을 존중한다'가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당회에서 충분히 토의한 후 다수결로 결정한다' 34%, '특정 장로가 의견을 모아서 목사님과 협의하여 조율한다'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의견 충돌 발생시 목회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는 10명 중 4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당회 차원 또는 대표 장로의 영향하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50%가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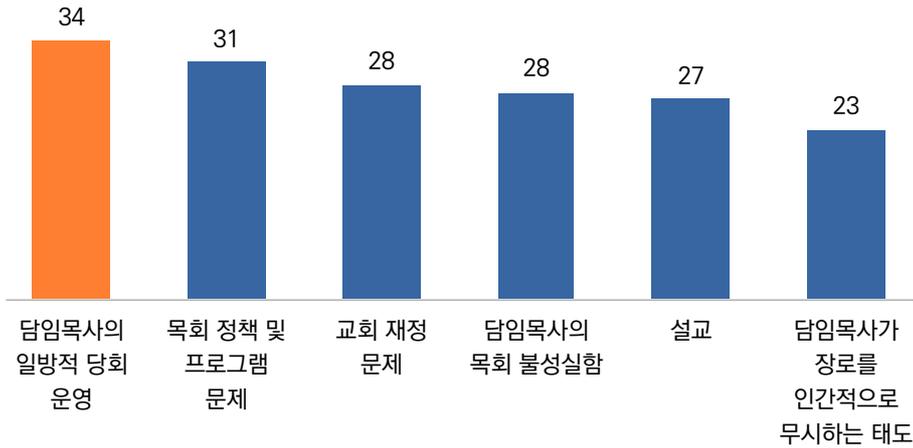
[그림]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시 해결방법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 있다고 응답한 시무장로, 상위 6위, %)



◎ 담임목사와의 갈등, ‘담임목사의 일방적 당회 운영’ 때문 34%

- ▶ 담임목사와 장로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주로 어떤 문제로 담임목사와 갈등이 생기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장로 3명 중 1명 정도(34%)는 ‘담임목사의 일방적 당회 운영’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목회 정책 및 프로그램 문제’ 31%, ‘교회 재정 문제’ 28% 등의 순이었다.
- ▶ ‘담임목사의 목회 불성실함’(28%)과 ‘설교’(27%) 등 목회적 영역을 꼽은 비율도 4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담임목사와 장로의 갈등 이유 (갈등 있는 시무장로, 1+2순위,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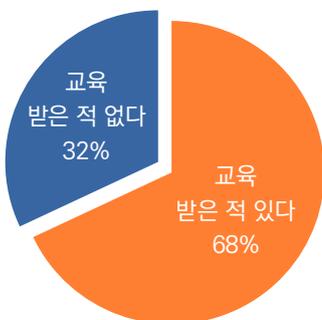
04

[장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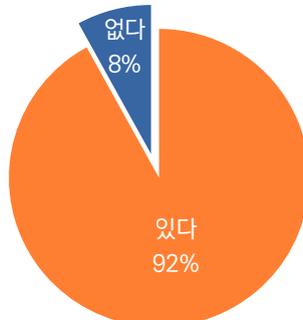
장로 10명 중 9명, 장로에게 필요한 교육 받을 의향 있다!

- ▶ 시무장로에게 장로 임직 후 교육 이수 여부를 묻은 결과, 교육 경험률이 68%, 3명 중 2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장로에게 필요한 교육을 한다면 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92%가 ‘있다’고 응답해 교육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 받고 싶은 교육으로는 ‘장로의 자세 및 직분 수행 교육’이 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다음세대 전략’(43%), ‘한국교회의 현황과 흐름 및 전망’(33%), ‘성도 상담 및 심방 방법’(33%)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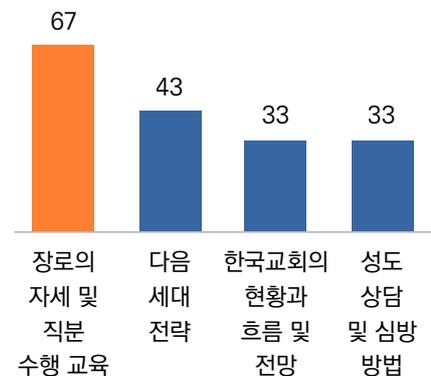
[그림] 장로 임직 후 교육 이수 여부 (시무장로)



[그림] 장로 교육 받을 의향 (시무장로)



[그림] 받고 싶은 교육 (의향 있는 시무장로, 1+2순위,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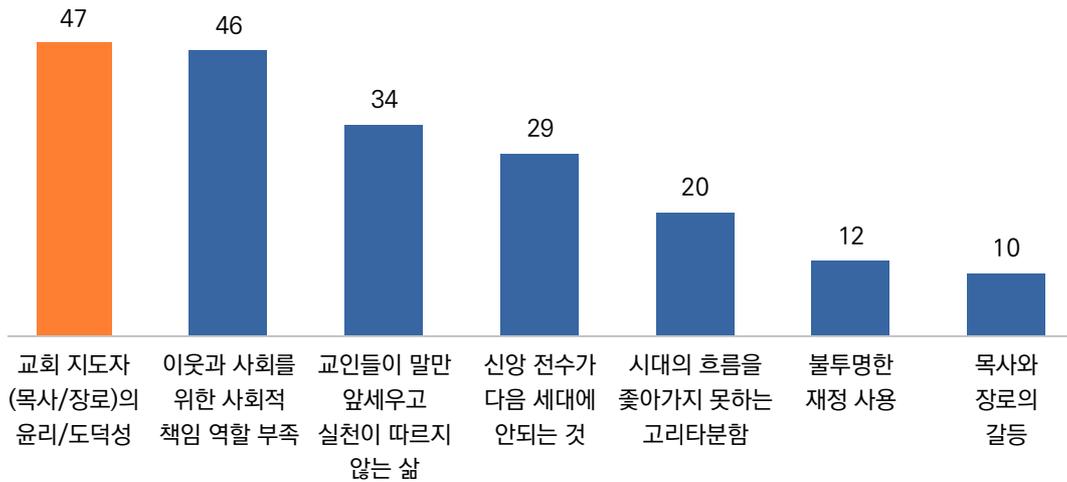
05

[한국교회 전망 인식]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 '교회 지도자의 윤리/도덕성' 47%!

- ▶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장로들에게 묻은 결과, '교회 지도자(목사/장로)의 윤리/도덕성'(47%)과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부족'(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 ▶ 이 외에 '교인들이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삶', '신앙 전수가 다음 세대에 안 되는 것'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한 '교회 지도자들의 개인적/윤리적 자질 부족'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 부족'은 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와 역할이어서 한국교회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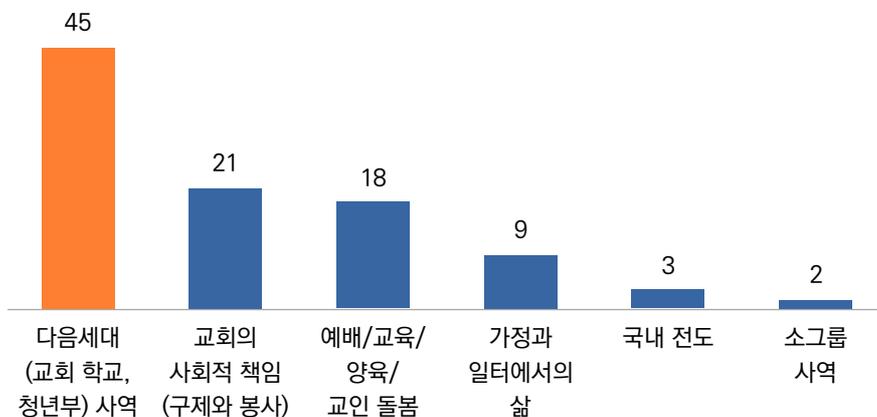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 문제점 (장로, 1+2순위, 상위 7위, %)



◎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 '다음세대 사역'!

- ▶ 장로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가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 '다음세대(교회학교, 청년부 사역)'가 절반 가까이(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 21%, '예배/교육/양육/교인 돌봄' 18% 등의 순이었다. 다음세대 사역에 집중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항목 대비 최소 2배 이상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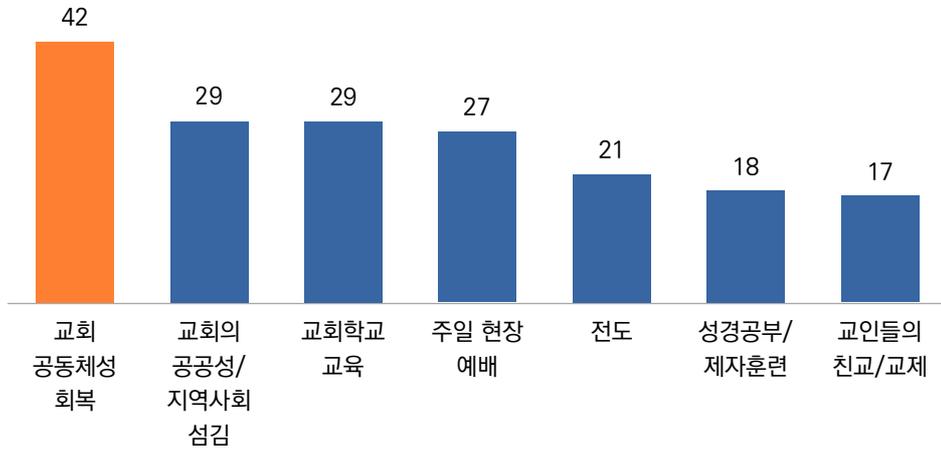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가 향후 집중해야 할 분야 (장로, 1+2순위, 상위 6위, %)



◎ 출석교회 중점 사항, ‘교회 공동체성 회복’ 가장 많아!

- ▶ 섬기는 교회의 올해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교회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2%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회의 공공성/지역사회 섬김’(29%), ‘교회학교 교육’(29%), ‘주일 현장 예배’(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교회의 올해 중점 사항 (장로, 1+2순위, 상위 7위, %)



시사점

장로는 교회의 리더이다. 교회의 리더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희생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리더십 종류 가운데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구성원들을 후원하고 지지함으로써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지도력'을 말한다.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일의 성과이다.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을 끌어내야 하는데 이를 명령과 규율보다는 신뢰와 존중으로 대할 때가 더 효과적이라는 이론이 서번트 리더십이다. 교회 리더십의 목적은 조직체로서의 교회 발전, 교회 성장, 교회 성숙이 아니다. 교회 리더십의 목적은 교인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즉 교회를 섬기는 장로의 사역 목적은 개인으로서의 교회와 조직으로서의 교회 모두를 포함한다는 말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면 장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로직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비율이 65%로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주변 장로를 평가하는 질문에 '교회 예배/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장로'(92%),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장로'(91%), '자기희생적으로 장로직을 감당하는 장로'(84%)가 있다는 응답이 80%를 훨씬 넘었다는 결과가 장로가 직분 수행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모든 장로에게서 긍정적인 면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부정적 요소는 권위적인 측면이다. '장로가 되고 나서 권위적으로 된 장로'들이 있으며(71%) 이들이 권위적으로 되는 것은 '장로를 계급으로 여기기 때문'(71%)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권위적인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경우'(77%)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장로가 교인 의견을 수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는 데서도 드러난다. 당회가 어떤 정책에 대해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또는 최소한의 설득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그 당회, 특히 장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장로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성도들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 장로의 본분에 가까운 일이다.

둘째는 담임목사와의 갈등 문제이다. 조사에 응한 장로 가운데 40%는 담임목사와 의견 충돌이 있다고 응답해서 당회 내의 의견 충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충돌이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담임목사의 일방적 당회 운영'(34%)과 '목회 정책 및 프로그램 문제'(31%)이다.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경우 또는 목회 정책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경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다. 흔히 장로는 목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말들을 한다. 그러나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직분이 아니다. 견제라는 것을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조언하고 충고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면 견제는 장로와 목사 상대방이 아니라 당회 구성원 모두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회를 목사 대 장로의 대립 구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당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되 개방된 자세로 임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며 양보하는 자세를 가질 때 당회가 보다 효율적이 되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

셋째는 장로의 직분을 주로 '권한' 중심으로 인식하고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장로들은 당회 원으로서 교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교회 부서의 책임자로서 사역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을 장로의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돌봄은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목사는 목양, 장로는 행정이라고 역할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목양과 행정이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목양이고 목양을 위해 필요한 것이 행정이다. 그러므로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행정이 뒷받침 안 되는 목양은 비효율성을 드러낼 뿐이고 목양이 뒷받침 안 되는 행정은 관료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로는 장로직을 '권한'(정책 결정권, 사역 책임권)으로 생각하는데 앞서서 '섬김' 즉 성도들을 돌보는 것과 상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로는 섬기며 희생하는 직분이지만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장로직을 수행할 때 성육신으로 오시고 희생하신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1.[일반 국민의 성소수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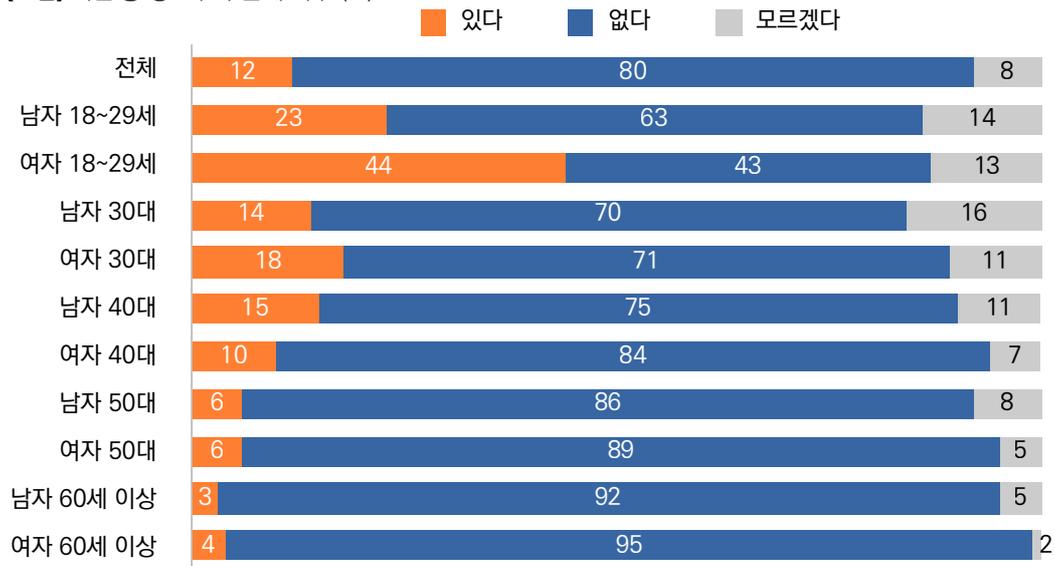
2.[여론조사에 대한 국민 인식]



20대 여성, '지인 중 성소수자 있다' 44%

- ▶ 우리 국민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인(가족, 친척, 친구 등) 중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가(12%) '있다'고 응답했다.
- ▶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변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18~29세 여성의 경우 성소수자 지인이 있는 비율이 무려 44%나 돼 주목된다.

[그림] 지인 중 성소수자 존재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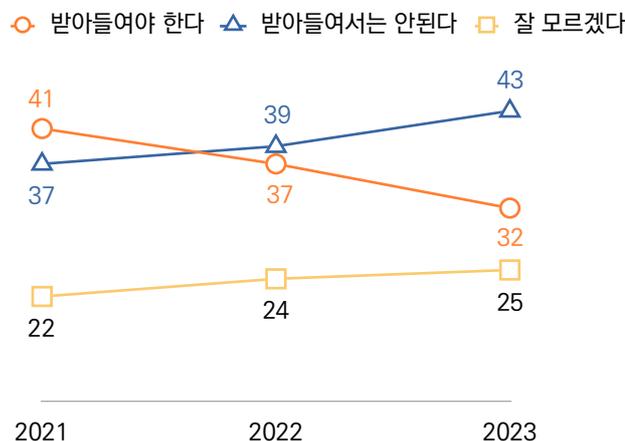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3 성소수자 인식 조사' 2023.07.19.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09.~06.12.)

◎ 우리 사회, '동성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인식 상승 추세

- ▶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수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2021년 37%로 '받아들여야 한다' 41%보다 4%p 낮았으나, 2022년 39%로 '받아들여야 한다'(37%)를 넘어섰으며 2023년(43%)에는 그 격차를 11%p까지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 ▶ 종교별로 개신교인의 반대율은 68%로 타종교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

[그림] 우리 사회의 동성애 수용도 (%)



[표] 동성애 수용도 (종교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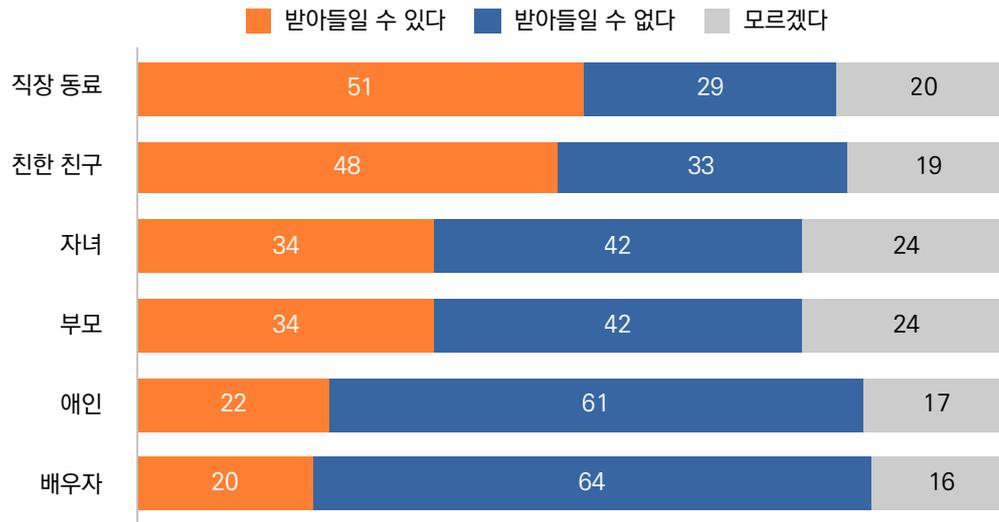
	받아들여야 한다 (%)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모르겠다 (%)
전체	32%	43%	25%
개신교	18%	68%	14%
가톨릭	35%	34%	31%
불교	31%	44%	26%
무종교	38%	34%	28%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3 성소수자 인식 조사' 2023.08.0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09.~06.12.)

◎ 우리 국민 절반, 직장 동료의 ‘커밍아웃’ 받아들일 수 있다!

- ▶ 그렇다면 가족이나 지인 등 가까운 주변인이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공개한다’(커밍아웃)면 어떨까? ‘직장 동료’(51%)나 ‘친한 친구’(48%)의 경우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였으나, ‘자녀’(42%), ‘부모’(42%), ‘애인’(61%) ‘배우자’(64%) 순으로 갈수록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애인, 배우자의 경우는 ‘커밍아웃 수용도’가 20%대에 불과했다. 즉,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가족/지인이 성소수자 커밍아웃 시 수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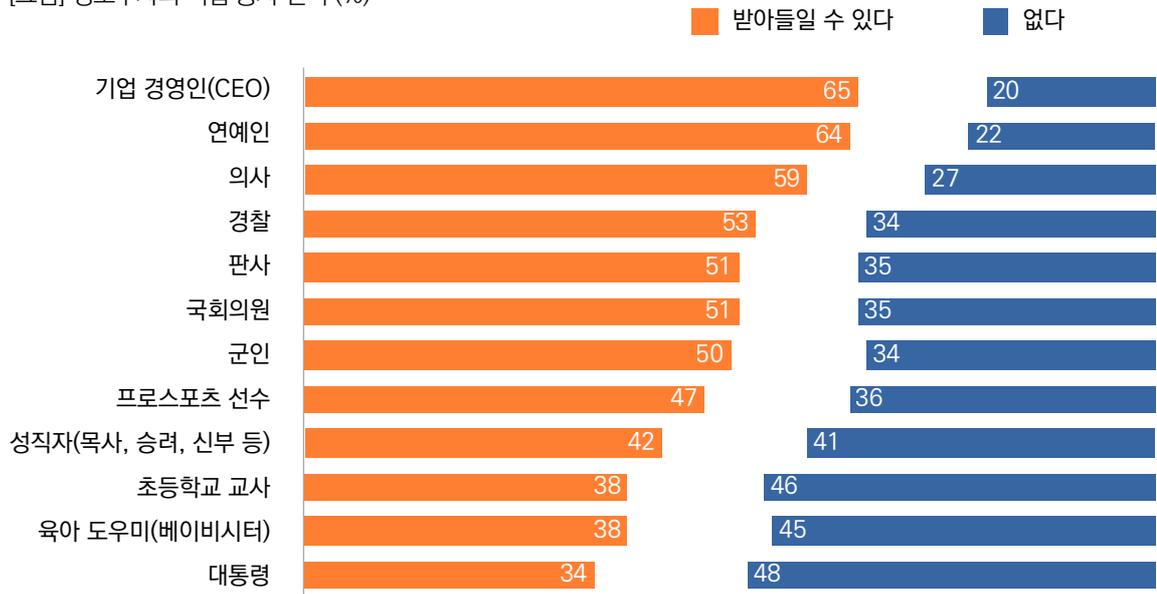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3 성소수자 인식 조사' 2023.07.19.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09.~06.12.)

◎ 개신교인 23%, 성소수자 성직자도 받아들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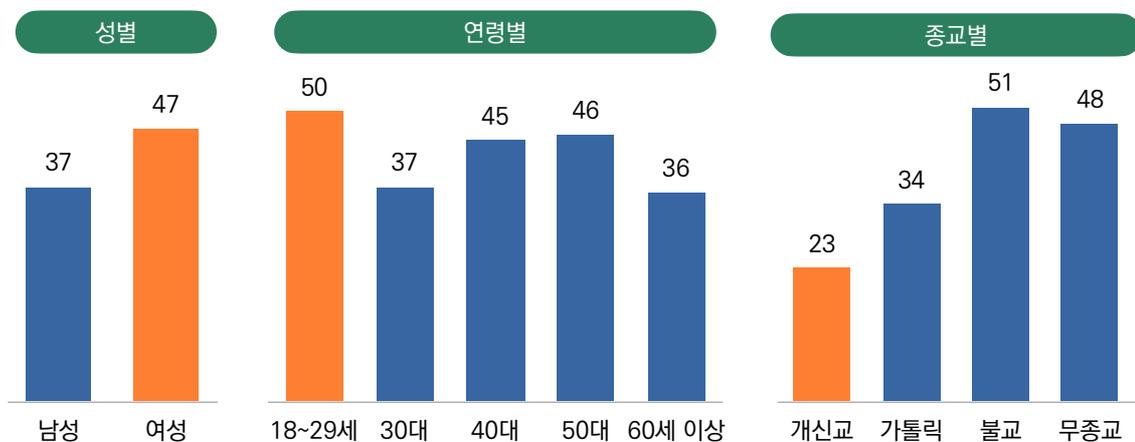
- ▶ 최근 '성소수자의 직업을 국민들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 성소수자의 직업이 '기업 경영인', '연예인', '의사'인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60% 안팎으로 비교적 높았다.
- ▶ 반면, 대통령의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 절반가량(48%)으로 가장 높았고, 육아 도우미, 초등학교 교사 등 자녀 교육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업의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각각 45%, 46%로 수용적 입장 대비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종교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신교인'의 경우 4명 중 1명 정도인 23%가 '성소수자 성직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해 주목된다. 또, '20대'와 '여성'의 (성소수자 성직자)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성소수자의 직업 종사 인식 (%)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3 성소수자 인식 조사' 2023.08.15.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09.-06.12.)

[그림] 응답자 특성별 성소수자 성직자 수용도 ('받아들일 수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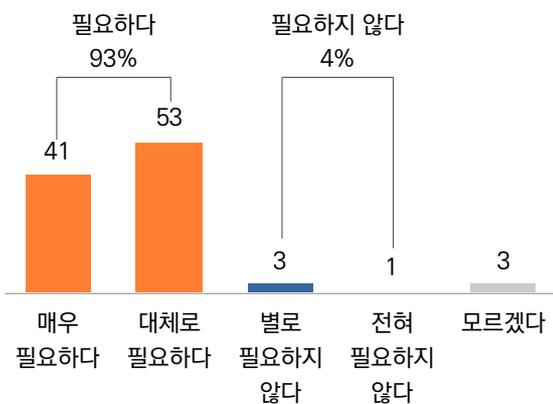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3 성소수자 인식 조사' 2023.08.15.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09.-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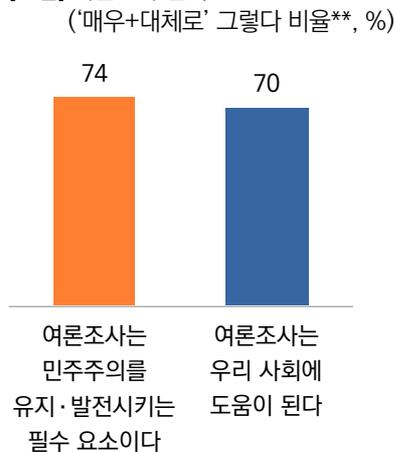
우리 국민 93%, 여론 조사 ‘필요하다’!

- ▶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흥미로운 결과(여론 속의 여론)가 있어 살펴보았다. ‘국가나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대체로 필요하다’ 53%, ‘매우 필요하다’ 41%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여론 조사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와 ‘여론조사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각각의 동의율을 묻은 결과, 두 의견 모두 70% 안팎의 비교적 높은 동의율을 보여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림] 여론조사의 필요성 (%)



[그림] 여론조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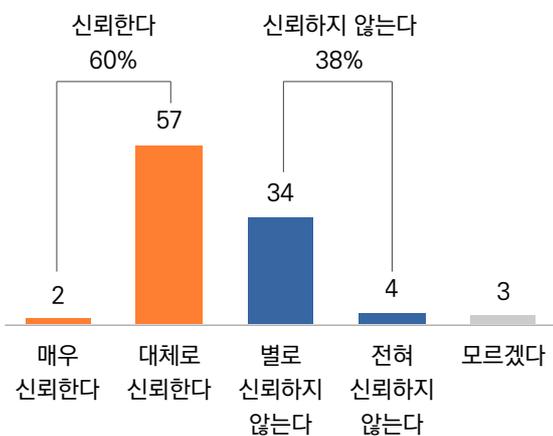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2023.08.08.(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23.-06.26.)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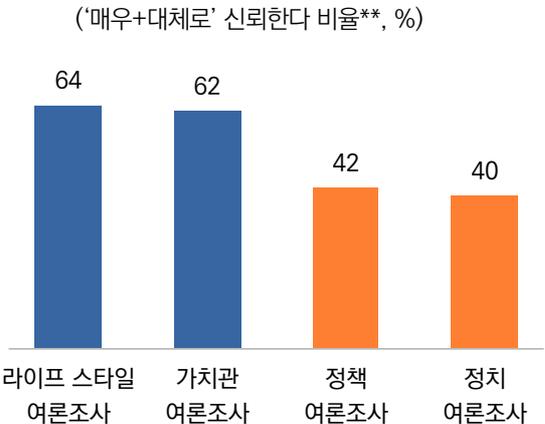
◎ 정책·정치 여론조사, 우리 국민 10명 중 4명만 신뢰

- ▶ 우리 국민들은 평소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까? 10명 중 6명은 ‘신뢰한다’(대체로+매우)고 응답했는데 여론조사 유형별 신뢰도를 보면 ‘라이프 스타일 여론조사’와 ‘가치관 여론조사’는 전체 여론조사 신뢰도와 비슷한 60%대인 것에 반해, ‘정책 여론조사’와 ‘정치 여론조사’의 경우 ‘신뢰도’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40%에 그쳤다.

[그림] 여론조사의 신뢰도 (%)



[그림] 유형별 여론조사 신뢰도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2023.08.08.(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23.-06.26.)
**4점 척도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103호 \(2023년 8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22대 총선 인식, 잼버리 대회 성과 평가, 흥기 난동 사건 이후 안전의식 등

[여야 수도권 경쟁력 모두 오합지졸](#)

시사저널_2023.08.18.

◎ 사회 일반

[2030 女 결혼해야할까? 여기서 갈렸다](#)

주간조선_2023.08.07.

[엄마가 스스로 떠난 그날을 20년 동안 살았다](#)

한겨레21_2023.08.19.

[\[영상\] 국민 82%는 “북한 비호감”...75%는 “안보 불안”](#)

KBS뉴스_2023.08.15.

[국정원 “北, 올해만 아사자 240명 넘어...최근 5년 평균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

동아일보_2023.08.17.

[어르신인 어르신 돌본다? 요양보호사 62%는 60살 이상](#)

한겨레_2023.08.18.

[한국 '백만장자' 125만4천명...전 세계의 2% 수준](#)

연합뉴스_2023.08.16.

[정권 바뀌면 리셋... 월급 짜지, 일은 많지, 보람도 없으니 떠난다](#)

서울신문_2023.08.15.

[사서에게 “애 밥 좀 먹여주세요”...교사만 당하는 게 아니었다](#)

매일경제_2023.08.17.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한다...“한국어능력 허들 낮출 것”](#)

중앙일보_2023.08.16.

[진료보조 인력 3명 중 1명이 수술·처방 등 의사 업무](#)

한겨레_2023.08.20.

◎ 기업 / 경제

[국민 56% “우리 노동시장 문제”, 47% “노사관계 불안정”](#)

조선일보_2023.08.17.

[월급 천만원 받다 나갈땐 8억... 30대도 희망퇴직 손드는 직장](#)

조선일보_2023.08.18.

["직장인 10명 중 9명, 회사 '쿨비즈' 도입에 긍정적"](#)

연합뉴스_2023.08.22.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미리 준비 못 해 후회되는 것은…” 퇴직 전 꼭 챙겨야 할 한 가지](#)

[주간동아_2023.08.16.](#)

[‘지정학 리스크’에 벌벌 떠는 CEO들...“수익성에도 영향”](#)

[매일경제_2023.08.19.](#)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라 1% 미만 임원 장수 비결 \[트라이씨 기업심리학\]](#)

[매일경제_2023.08.09.](#)

◎ **건강**

[K직장인 분석해 보니 ‘이런 식’으로 일하면 3배 더 아팠다](#)

[조선일보_2023.08.17.](#)

◎ **국제**

[약물중독에 신음하는 미국...66%가 “본인·가족 중독 경험”](#)

[조선일보_2023.08.16.](#)

[중국인 줄어든다 ... 출산율 1.09명 '역대 최저'](#)

[매일경제_2023.08.16.](#)

◎ **기독교 / 종교**

[교세 230만 2682명, 아동세례교인 2만 1886명](#)

[한국기독교공보_2023.08.01.](#)

[팬데믹 여파 밀려오나...“자립교회도 줄었다”](#)

[기독신문_2023.08.14.](#)

[미국 목회자 63% “기독교 미래에 두려움”](#)

[더미션\(국민일보\)_2023.08.15.](#)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리트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